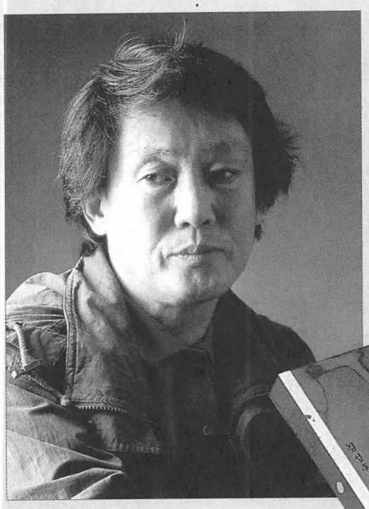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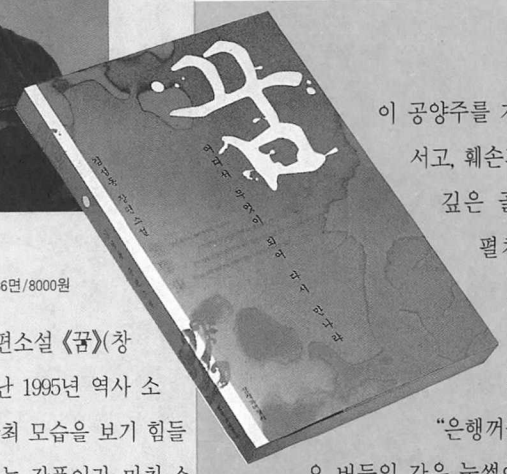
'진음' 찾아 헤매는 가객의 노래

《꿈》 펴낸 김성동씨



김성동씨(창작과비평사 사진제공)



창작과비평사/A5/336면/8000원

소설가 김성동씨(54)가 장편소설 《꿈》(창작과비평사)을 펴냈다. 지난 1995년 역사 소설 《국수》(솔) 이후로는 당최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작가가 6년 만에 내놓는 작품이라, 마치 소식 끊겼던 식구를 다시 만난 듯 반가움이 앞선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그동안 산과 그 언저리를 떠돌았단다. 문학도 저자에서의 삶도 다 던져두고.

"산은 내 정신의 저수지입니다. 현실에 살면서도 늘 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회한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은 '예토'에 디디고 있으면서 마음은 늘 '정토'를 지향한 셈이랄까요."

예토와 정토의 어름에 끼인 자의 고뇌 그려

예토와 정토의 어름에 끼인 자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방황. 소설가는 일정한 거처도 없이 절집과 절 아래 민박집을 떠돌며 '악착같이' 그것을 소설 《꿈》에 옮겨놨다. 그래서일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젊은 비구 능현은 작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많이 닮았다.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가 실제로 그랬듯 생면부지의 아버지 때문에 '붉은 씨앗'으로 낙인 찍혀 열아홉에 출가한다. 화두를 놓지 않으며 10년간이나 정진해온 능현 앞에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차라리 서러운" 여대생이 나타난다. "백팔까지 백팔 번씩 다시 백팔부터 하나까지 백팔 번씩" 그렇게 평생을 기다린대도 다시 만나고 싶던 아름다운 여대생은 능현에게 문학의 길을 열어주고, 우연찮게 문학을 받아들인 능현은 소설의 내용이 문제가 돼 승적을 박탈당한다. 지리산 방장산 토굴로 떠나는 능현을 여대생이 공양주를 자처하며 따라 나서고, 훼손되지 않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 자연에서 펼쳐지는 두사람의 사랑은 가슴이 아릴 만큼 맑고 아름답다.

"은행꺼풀 같은 눈시울이요 버들잎 같은 눈썹이고 참기름 같이 맑은 눈동자며…." 마치 조선시대 미인도 속의 여인을 옮겨놓은 듯 아름다워 수월관음 같고 부처님 얼굴 같은 여대생은 살을 태우는 연비의식을 통해 '반야'로 거듭난다. 두 사람은 지아비 지어미의 연으로 살되 함께 수행하고 해탈에 이른 광덕과 엄장처럼 살자고 한다. 연모하는 마음으로 부부 연을 맺고 아이도 다섯은 낳았다는 조신과 김랑처럼 평생을 함께 하자고도 한다. 비록 깨어보면 한자락 꿈일지라도.

정토를 향한 수행의 도반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지리산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무수한 '아버지'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천도제도 지낸다. 작가는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 어쩌면 평생 자신의 가슴에, 나아가 우리 민족사에 아픈 상처로 멍울져 있는 한을 풀어내리고 화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석굴 속에서 찾아낸 부처님 상호를 그린 초화에 점안을 하는데 붓끝이 미끄러져 마치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된 장면도 인상적이다. 이는 이후 반야가 사라질 것에 대한 암시이자 정토를 지향하나 예토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중생의 삶에 대한 연민이기도 하다. 바람처럼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버린 반야. 그를 찾아 저자로 나선 능현이 명동 한복판에서 손을 모아 부르는 '우우' 소리는 그래서 떠난 사랑을, 도반을, 부처를 부르는 소리다.

"부처란 원래 그 시대의 상처나 고통을 가락으로 바꿔서 노래부르던 소리꾼이 아니던가. 설산 수도 6년에 소리의 참 이치를 확실히 깨우치고 나서 기름지고 우아한 등롱 아래를 마다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저자의 뒷골목을 떨리는 발길과 열리는 가슴으로 진음(眞音) 찾아 헤매는 가객이 아니던가"라는 능현의 말은 6년 방황 끝에 문학으로 복귀한 작가가 새롭게 확인한 문학관에 다름 아니다. 글쓰기도 업이라 쉽게 떨쳐버려지지 않는다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놓여 있는 억울한 죽음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사람의 본디 마음, 삶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문학의 할 일이라는 게 작가의 생각이다.

유장하고 출렁거리는 문체의 묘미 살려

오염된 우리 언어를 지켜내는 일도 소설가의 몫이라는 작가정신 덕분에 새롭게 복원된 빛나는 우리말과 우리식 표현과 함께 이 소설을 읽는 또 하나의 묘미는 '유장하고 출렁거린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독특한 문체. 첫 장을 여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까지 한 결로 출렁대는 그 흐름에 마음을 싣고 가다보면 마치 이른 새벽 산사에서 스님의 도량석 염불을 들으며 팔만사천 번뇌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 소설은 흘러간다. 꿈처럼. 무수한 불교 선지식의 경구와 게송과 법어가 등장하지만 그것이 이 소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문체 덕분이지 싶다.

열아홉살 이른 새벽 이슬방울을 바짓가랑이에 적시며 '출가'했던 그 맑고 서늘했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늘 다짐한다는 작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꾼다. 사람과 자연, 남과 나가 한데 어울려 고루 행복한 생태적 삶터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는 이를 '미륵고루살이'라고 이름 붙여놨다. – 박남정(자유기고가)